

제주 4·3시기 전략촌의 형성과 주민생활

—선흘리 낙선동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은 희

*제주4·3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2. 4·3전략촌의 형성과 변화
3. 선흘리 낙선동 전략촌 주민의 생활
4. 맺음말

1. 머리말

2003년 10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¹⁾과 관련하여 군경토벌대의 진압작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음을 인정하고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초 사과였다. 이보다 15일 앞선 10월 15일에는 정부의 4·3진상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공식입장 표명으로 그동안 ‘4·3폭동’으로 규정되었던 역사를 어느 정도 바로 잡게 되었다. 이는 지난 1987년부터 본격화된 4·3진상규명운동의 결과였다. 4·3진상규명운동의 과정에서 제주 4·3연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 행사와 집단학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의 발간을 전후하여 4·3연구의 대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주제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²⁾ 그러한 연구의 흐름에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4·3생활사 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4·3의 생활사 연구의 한 부분으로 ‘4·3전략촌’과 ‘4·3석성’을 연관시켜 제주 도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보고자한다. ‘4·3전략촌’은 4·3진압작전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전략촌’이라 하면 주민들을 한곳에 이주시키고, 무장대의 거점을 없앤다는 전략에서 나온 집단수용소 격인 마을을 말한다.³⁾ 무장대의 물적 토대를 일소시킨다는 이 정책은 소개 시 마을사람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일체의 가제도 구도 가지지 못하게 하여 갑자기 이주를 시키기 때문에 원성이 높았다. 이로써 집단 아사나 병사들이 발생했고, 이들 농민의 전략촌 이주로 인하여 농지가 황폐화되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하였다.⁴⁾ 제주도민들은 전략촌을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속칭 ‘00함바⁵⁾’라 불렀다. 4·3진압부대는 이러한 전략촌에 제주의 현무암을 이용해 ‘석성’을 둘렀다.

‘4·3석성’의 종류에는 ① 경찰지서를 방어하기 위해 4·3 초기부터 쌓은 지서성, ② 마을마다 경비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전략촌성, ③ 토벌 목적으로 산간 중요 요충지마다 쌓

1) 제주 4·3은 정부에서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의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되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그러나 아직도 4·3은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된 것에 불과하며, 정확한 역사적 명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합의에 이른 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건의 학술적 성격 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4·3’이라고 명명하였음을 밝혀둔다.

2) 유철인과 이정주의 인류학적 여성생애사 연구; 김영범과 권귀숙의 사회학적 역사적 기억 연구; 김성례와 양정심, 고성만의 4·3 담론 연구 등. 제주4·3연구소, 박찬식의 수형인 관련 자료집 발간 및 연구 등.

3) 전략촌(strategic hamlet)은 1962년부터 남베트남에서 실시된 對게릴라작전의 하나이다. 남베트남정부가 확보한 농촌지역에서 몇 개 마을을 합병시켜 요새화한 인공촌을 가리킨다. 전략촌에 농민을 이주시켜 민병대나 경찰이 게릴라의 침투와 선전을 봉쇄하는 것이 목적이며, 긴급할 때는 즉시 정규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게릴라와 농민의 접촉을 끊고 인민전쟁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미군의 지도 아래 실시되었으나 행정의 졸렬함 등으로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반대로 강제수용소를 만들었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농민을 강제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게릴라를 고립시킨다는 작전은 19세기 쿠바 등에서 시도되었고, 특히 1950년대에 영국군이 말레이반도에서 반란을 진압할 때 사용한 사례로도 유명하다(<http://100.nate.com/EnSrch.asp?KID=17734100>). 또한 ‘전략촌’의 한 예로 일본군은 만주국 각지에 비민 분리공작을 위해 실행하였다. 일본군은 항일유격대와 민중 특히 농민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無主地帶를 설정하여 집단 부락과 안전농촌을 대거 건설하려 했다(윤휘탁, 『일제하 滿洲國의 치안숙정공작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191쪽).

이렇듯 4·3전략촌은 미국의 대한전략과 맞물려 중일전쟁에 일본군으로 참전 경험이 있던 국군 수뇌부들의 전략에 의해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런 전략은 베트남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4) 강정구, 『베트남 전쟁과 미국의 전쟁범죄』, 1972.

5) 움막형태로 지은 연립식 주택.

은 군경 주둔소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도내 4·3석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현재 81개소가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필자는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도내 산재해 있는 4·3전략촌 중에 비교적 형태가 잘 남아있는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 전략촌’을 선정하여 문헌자료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선흘리 낙선동은 당시 전략촌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49년부터 1954년까지 6년 동안 간혀 지냈던 고통의 세월과 생활상을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을 통해 구술 채록할 수 있다.⁷⁾

2. 4·3전략촌의 형성과 변화

1) 4·3전략촌의 형성

제주 4·3에 대한 본격적인 진압작전이 전개되던 1948년 10월부터 이승만 정부는 제주전역을 적성지역으로 규정하고, 섬을 불태워 게릴라를 소탕하는 이른바 초토화 작전을 실시했다.

1948년 10월 17일, 정부군 제9연대장 송요찬은 ‘해안에서 5km이상은 적성지역’이라는 포고령을 제주도에 발포했고, 뒤를 이어 11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9연대는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중산간 마을을 불태우고, 살상하고, 해안마을로 이주하라는 ‘초토화작전’을 전개했다. 이러한 초토화 작전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의 G-2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모든 저항을 없애기 위해 모든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유격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했다. 학살의 대부분은 제9연대가 점령한 1948년 12월까지 자행되었다. (중략)… 섬에 있는 주택 중 약 1/3이 파괴됐고 주민 30만 명 중 1/4이 자신들의 마을이 파괴당한 채 해안으로 소개당했다.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45개 마을과 부분적으로 파괴된 43개 마을로부터 피난민들이 해안 마을의 수용소로 이동해왔다.⁸⁾

이처럼 초토화작전은 소개령을 내려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킨 후, 다수의 제주도민들은 ‘폭도의 심정적 동조자 또는 협력자’라는 전제 아래, 석성을 쌓아 주민들을 강제수용하고 감시하는 작전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작전은 보갑제라는 연대 책임식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해 일반 주민과 무장대를 차단시킨다는 것이었다. 소개당한 중산간 주민들과 해안마을 주민들은 정부군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의 수용될 성을 쌓기 시작했다.

6) 현재 남아 있는 석성의 현황을 보면 북군, 제주지역에 54개소로, 제주읍 8, 조천면 2, 구좌면 1, 애월면 20, 한림면 7, 한경면 6개소 등과 주둔소성 10개소로 조사되었다. 남군, 서귀지역은 27개소로 대정면 6, 안덕면 2, 중문면 6, 서귀면 2, 남원면 4, 성산면 1개소 등과 주둔소성 6개소로 조사되었다. 제주도·제주 4·3연구소, 『제주 4·3 유적』, 도서출판 각, (2003~2004). 이 제주 4·3유적 조사에 필자도 참여했다.

7) 선흘리 낙선동 전략촌에 대해서는 김형조, 고성준, 김내수, 고훈봉, 부양하, 장두일 등 6명을 집중적으로 구술채록 했다. 낙선동 외에도 전략촌 연구를 위해 2004년~2005년까지 120여 명을 증언채록 했다.

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해안마을 전략촌’의 형성은 첫째, 무장대의 차단과 분리를 위한 방책이었다.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해안마을은 4·3전략촌 성격의 무장대에 설의 압력을 감수할 수 있는 많은 기간이 성담마을과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시급했다. 실제로 무장대들은 식량, 은신처, 보급품, 정보를 포함해 자신들의 병참 지원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의존하였다.

둘째는 군경의 주민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중산간 일대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수행한 정부는 해안마을로 이주시킨 주민들을 석성을 쌓고 수용한 후 선별 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군은 미리 작성된 명단에 따라 주민들을 등급별로 분류해 숙청하거나, 요시찰 인물로 지정하여 감시했다. 신분이 확인되는 주민들에게는 양민증을 발급했다. 이때 양민증은 ‘선량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사를 결정짓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셋째는 민보단을 조직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경비하도록 하는 한편 무장대에 대항하도록 했다. 전략촌에서의 생활은 성담 경비를 위한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부군은 도민 스스로 산쪽⁹⁾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케 하여 사건의 책임을 무장대와 도민들에게 전가시켜 스스로 방어체계를 갖추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성 밖 주변 나무 자르기(시야청소), 성호 파괴, 가시나무 잘라다가 성담과 호에 넣기 등 계속되는 노역에 동원 되었다. 젊은 남자들이 대다수 희생되었기 때문에 강제노역은 여성들의 몫이었다.

2) 4·3전략촌의 성격 변화과정

4·3전략촌의 구축은 1948년 소개령 이후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기까지 6년 동안 진행되었다. 전략촌은 해안마을 → 중산간마을 → 산간마을 순으로 확대되면서 한라산을 포위하는 형상으로 전개되었다. 전략촌은 토벌작전이 진행되는 시기에 따라 본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조금씩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필자는 전략촌의 성격변화 과정을 토벌작전의 전개시기에 따라 3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¹⁰⁾

(1) 분리 작전과 ‘해안마을 전략촌’ 구축기: 1948.11~1949.3

9) 산쪽은 산으로 피한 피난민, 도피자 가족, 요시찰인, 무장대 등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10) 이 부분은 좋고, 「제주 4·3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제주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05) 중에서 재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해안마을 전략촌의 구축은 초토화 작전이 본격 전개되기 시작한 1948년 11월부터 시작하여 극렬한 초토화 작전이 마무리되는 1949년 3월에 이루어졌다. 정부군은 초토화작전을 전개하여 제주도 400여 마을 중 105개를 제외하고 중산간의 모든 마을이 불태우고 파괴하였다.¹¹⁾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안마을로 강제이주 당했다.

1949년 1월부터 해안마을 전략촌 구축을 위해 두른 성담은 소개 온 중산간 마을 사람들과 해안마을 사람들 총동원해 단시일 내 완성되었다. 당시 언론은 해안으로 제주 도민들을 몰아넣은 후에 축성 작업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총동원되어 만리장성을 연상케 하는 12만여m를 축조했다고 보도했다.¹²⁾ 제주도 일주도로의 길이가 180여km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마을을 두른 성의 길이를 합한다면 몇 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해안마을 석성의 폭은 3~4m, 높이 3.5~4m에 이르렀다.

무장대가 지목했던 해안 마을인 구엄리, 중문리, 한동리 등은 습격에 대비하여 이중성을 쌓았다고 한다. 성담 쌓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원 동원되었다. 다만 제주시는 호당 1명씩으로 제한했고, 축성 기간은 1개월 이내에 완성을 했다. 해안 마을 중에 성 쌓기가 제일 쉬웠던 곳은 성산리인 듯했다. 성산리는 들어오는 마을입구 20여 미터 양쪽으로 쌓고 문을 달아 놓아 입초만 서면 됐다고 한다.¹³⁾ 북촌리와 동북리는 해안 마을이면서도 완전 초토화되어 인근 마을로 소개당한 마을이기도 하다.

제주시(당시 제주읍)의 석성은 한라산 쪽을 방어하기 위해 동쪽의 사라봉에서 서쪽의 도두봉까지 8km에 걸쳐 쌓여졌다.¹⁴⁾ 제주읍 성안에는 도남리, 아라리 인근 중산간 13개 마을 주민들이 강제 이주되어 수용되었다. 당시 신문기록에는 길가의 부인들의 뒷머리에 흰 ‘댕기’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⁵⁾

성담 쌓기에 동원되었던 체험자 이순정은 부친이 서북청년단에 의해 돌아가시자 상중이라는 표시로 머리에 하얀 리본을 꽂은 채 성담 쌓기에 갔던 일을 회상했다.

우리도 성 쌓으러 다녔어.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상복해주시니까 흰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갔어. “왜 너는 일하러 오는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는 하얀 리본을 했느냐?”고 군인이 무슨 뜻이냐고 묻더라고. “이게 뭐냐? 이런 것을 단 사람이 많은 데 뭐냐?”고 물어.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상주는 3년간 하얀 치마 입고, 3년 동안 머리에 리본을 달고 다닙니다.”고 했어. 축성작업에는 집집마다 다 나오라고 했어 어머니는 아프고 언니는 시집가고 동생들은 어리고 나밖에 갈 사람이 없었어. (여중)2학년 때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같애¹⁶⁾

이윤¹⁷⁾의 『진중일기』에는 태흥리에 2연대 1대대 2중대가 주둔하면서 전투사령부의 지시로 축성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한다.

이 작업은 제주 역사상 가장 큰 작업이다. 부락단위로 일주도로 해안선을 연결하는 큰 공사이다 보니 인력이

11) 「비참한 제주도, 진정은 洪氏 읍소」, 『동아일보』, 1949년 3월 12일.
 12) 「군정 3년의 유죄, 일부 汚吏에도 책임이 있다, 국회의원 朱基瑢, 제주답사기(2)」, 『자유신문』, 1949년 3월 22일.
 13) 이기선, 성산을 성산리. 2004년 채록.
 14) 필자가 아래의 증인자들로부터 구술증언을 통해 정리한 것이다. 강좌겸, 신순영, 현용준, 송주형, 허태현 등을 채록.
 15) 「제주도의 요지음 모습, 인구 감소 3만여, 주택은 2만여 호 소실」, 『조선중앙일보』, 1949년 6월 28일.
 16) 이순정, 애월읍 애월리, 2005년 11월 7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17) 이윤, 제주시 연동, 2005년 3월 16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많이 필요하여 현지 주민남녀를 막론하고 총동원되어 매일 작업이 이어졌다. 주민의 피나는 노력에 작업 능률은 예상보다 빨랐다. 이 지방은 어디를 가나 돌천지요 돌이 현무암이어서 가벼우면서도 견고했다. 우리들이 감독 겸 동원책임 의무로 나갔지만 사실상 이곳 주민들의 솜씨와 기묘한 고안으로 작업을 하는 데는 그저 감탄할 뿐이었다. 다만 문과 경비대만을 설계대로 진행할 뿐이며 축성 작업에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했다. 제주도민은 예부터 돌 성 쌓는 전통이 있었다. 가옥건축, 조상의 산소, 농작물 경작지 둘레, 목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성 작업을 해온 전통을 이번 작업에 유감없이 실력을 보여줬다. 돌성은 시작된 지 10여일 만에 완축 되었는데 하여간 이 지방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극도에 달한 공산도배에 대한 중요성이 이룬 결과였다.¹⁸⁾

한편 군 작전에 필요에 따라 일부의 중산간 마을은 초토화되지 않고 바로 ‘전략촌’이 구축되는 경우도 있었다. 초토화되지 않은 중산간 마을은 표선면 성읍리, 애월면의 봉성리, 상가리, 수산리, 성산면의 난산리, 삼달리, 신평리, 중문면의 회수리, 서귀면의 토평리 등이 있었다. 이들 지역이 초토화작전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장대 근거지인 한라산과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 때문이었다.

(2) 재건·분산수용을 위한 ‘중산간 마을 전략촌’ 구축기: 1949.3~1954.3

1949년 3월부터 1954년 3월까지 정부군의 토벌작전은 초토화작전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평가에 따라 선무와 귀순 등 느슨한 형태의 토벌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한라산 포위망을 점차 좁혀 나갔다. 이에 따라 초토화된 중산간 마을을 재건하는 한편 중산간 지역으로 전략촌 구축을 확대하였다.

초기의 중산간 마을의 전략촌 구축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¹⁹⁾ 토벌대들의 토벌활동도 전진배치 되는 양상을 띠었다. 1949년 3월에는 중산간 마을 중에 제주읍 봉개리가 최초로 재건되고 전략촌이 구축되었다.²⁰⁾ 당시 토벌을 담당했던 제 2연대는 상징적으로 최초의 중산간 전략촌을 구축하고 마을의 명칭도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함명리’²¹⁾로 명명하였다.

이는 마을 재건과 토벌작전을 병행하기 위한 중산간 마을 전략촌 구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무장대의 입지를 좁혀 가는 토벌전진기지 역할과 귀순자와 이재민을 분산수용,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토영역의 확대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다. 해안마을로 소개됐던 중산간 주민들은 성을 쌓는 고역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빨리 내 땅 내 집에 가서 농사도 짓고, 우마도 기르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만을 고대했다. 4.3이 진행과정 속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으나 해안마을의 따가운 눈총을 감수하는 것 보다 낫다고 믿었다.

그러나 중산간 마을 재건사업은 원만하게 수행되지 않았다. 주거용 재목의 별채와 수송의 어려움 때문에 임시로 함석집이나 초막을 지어 주민들을 수용했다. 산쪽 세력은 계속 위축되고, 토벌대를 피해 산으로 숨었던 피난민들이 대거 귀순해오면서 해안마을에 수용

18) 이윤, 『진중일기』, 여문각, 2002, 110쪽.

이윤은 2연대로 제주에 왔던 게 인연이 되어 군 제대 후 제주도에 정착하였다.

19) 이 시기 ‘중산간 43전략촌’으로는 선흘리, 대흘리, 광령리, 장전리, 조수리, 서광리, 색달리, 의귀리, 제주시 아라동, 노형동, 봉개동, 도평동, 성산 수산리 등이 있다(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20) 양태보, 제주시 봉개동, 2004년 7월 15일 자택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증언자는 봉개동 첫동네 재건 날짜를 1949년 3월 14일로 기억하고 있었다.

21) 2연대는 이 지역을 완전히 소탕한 후 함병선연대장 이름의 ‘함’자와 작전참모 대위 김명의 ‘명’자를 따서 이름을 ‘함명리’로 바꾸어 재건을 명령했다. 함명리 명칭은 6년 이상 사용하다 다시 봉개리로 개칭하였다(「6년만의 해후, 咸중장 함명리민과 감격의 악수」, 『제주신보』, 1955년 2월 5일).

시설은 턱없이 모자라게 되었다. 1949년 8월까지도 7,379명의 귀순자와 97,703명의 이재민을 구하기 위해 35개 ‘재건부락’을 세웠으나, 아직 3만여 명 밖에 수용하지 못했다²²⁾고 한다.

중산간 전략촌에서의 생활은 좁은 공간에서 열악한 의식주로 비참하기 그지없었고, 극심한 위생상태 때문에 아이들과 노인들은 각종 전염병을 이겨내지 못해 사망자가 많았다.

겨울을 수산에서 보내고 봄에는 장전에 소길, 장전, 금덕(현 유수암리) 3개리를 합쳐서 재건을 했다. ‘장전 합바’에 와서 1년을 살았어. ‘합바’라는 것은 집 하나에 한 가족씩 살게 하고 집 한 채면 여덟 가족이 살았어. 뭐 가리지도 못했어. 여기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지. 어떤 피해냐 하면 천연두가 돌았어. 어린 아이들 상당히 많이 죽었어. 위생이 워낙 나빠서. 옆에 방에서 죽은 거 아침이면 메가고 몇 십 명이 죽었는지 몰라. 보초는 어리니까 보초를 안시키고 형님은 보초를 선 것 같아. 3개 부락 합동으로 경비를 썼어. 49년 겨울까지 지내서 다음해 50년도에 유수암으로 올라왔어. 여기 와서 6·25를 만났어. 경찰 파견소가 있었는데 내가 16세 때 ‘별동대’로 근무를 썼어. 파출소 앞에 정문 앞을 지키는 일이야. 망루대를 지어서 보초시켰어. 사람이 부족하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보초를 서라고 한 거야. 유수암 재건 후부터 별동대로 다녔어. 별동대는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아이들이 하는 거야. 단순히 파견소를 지키기 위한 거야. 파견소도 성을 쌓고, 유수암 마을도 성을 둘렀어 강창휴 증언.²³⁾

이 시기에는 중산간 마을 전략촌외에도 중산간 마을과 한라산으로 이어지는 길목 마다 경찰주둔소²⁴⁾가 설치되었다. 1952년에는 전도에 32개 경찰주둔소가 있었다. 이들 주둔소에는 3~4명의 경찰과 민간으로 구성된 10여명의 경찰보조원이 상주하였다.

(3) 완전 재건을 위한 ‘산간마을 전략촌’ 구축기 : 1954.4 ~1957.4

1954년 4월부터 1957년 4월까지는 잔여 무장대가 5명²⁵⁾으로 좁혀져 막바지 소탕작전과 산간마을 완전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였다. 공식적으로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령과 성담 경비가 해제되었지만 한라산 가까이에 있는 산간마을에는 1957년까지 전략촌이 구축되고 경비가 이루어졌다.²⁶⁾

산간마을 전략촌 구축은 1954년 4월 이후 주민들은 마을 복구허가를 바라는 진정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본격화 된다. 정부는 산간마을인 청수리, 와산리, 금악리, 동광리, 도평리, 해안리, 덕천리등의 산간마을에 입주허가를 내렸다.

산간마을 출신인 김양언 씨 산간마을 축성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54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니까 가서. 성담도 부모네 없으니까 일요일 때는 어려도 가서 쌓고 성담 높이는 3.5m 정도, 지금도 그 높이 그대로 있어요 굽은 1m는 더 낮을 거예요 1.2m 뉘서 위 폭은 30cm정도 성 쌓고 밑에 허술한 데는 가시나무 해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거로(화북2동)에 살면서 성 쌓고 고향에 갈 사람은 일허레 다 나오

22) 「변모한 제주 삼다, 10만 재민의 구호 긴급」, 『서울신문』, 1949년 9월 1일.

23) 강창휴, 애월읍 유수암리, 2004년 8월 5일 필자가 자택에서 채록했다.

24) 1950년이 되면 중산간 높은 지대를 요새로 경찰 주둔소가 설치된다.

명도암 주둔소, 선인동 주둔소, 동원 주둔소, 해안동 주둔소, 서원 주둔소, 유수암 주둔소, 어음리 주둔소, 월림주둔소 등.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 43유적』(2003.2004).

25) 「한라산 잔비는 이제 5명! 2파분열코 절망의 연명, 온정의 포섭에 여비 1명 또 귀순」, 『제주신보』, 1954년 2월 16일

26) 「한라산에 봄이 오다! 산간부락 4월부터 전면적 입주.李국장 천명」, 『제주신보』, 1954년 3월 18일.

라고 회복 사람들이 그냥 노력지원도 많이 해주었어요 어린 아이라도 심부름이라도 하고 돌세기 하나라도 주워 봐야 한다고 해서 왔죠.²⁷⁾

산간마을 전략촌의 성담은 해안마을이나 중산간 마을 보다 낮고 허술하며, 넓은 지역을 두른 것이 특징이다. 폭 1~1.5m, 높이 2.5~3m 정도였다. 정부는 잔여무장대 세력은 미미했지만 반드시 산간마을인 경우 마을 축성이 이루어진 후 주민들을 입주시키고 보초를 서도록 했다.²⁸⁾ 그러나 주민들의 다수가 희생되고 소수의 주민들만 살아남은 일부의 산간마을과 중산간의 자연부락들은 복구되지 못하여 잃어버린 마을로 남았다.²⁹⁾

3. 선흘리 낙선동 전략촌 주민의 생활

1) 선흘리 낙선동 전략촌의 구조와 내력

제주시 동쪽에 위치한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 전략촌’은 중산간 마을 전략촌의 일반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행히 ‘낙선동 전략촌’은 현재까지 형태가 잘 남아 있어 4·3 유적지 답사팀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조천읍 선흘리는 1948년 당시 300여 호가 넘는 중산간 마을 중에는 제법 큰 마을에 속했다. 1948년 11월 21일 군인들에 의해 선흘리 소개 작전이 전개되면서 주민들은 인근 선흘곶으로 피신하던가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11월 25일부터 3일간 선흘곶에 숨어 있던 선흘리 주민 100명 이상이 군경 토벌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대부분 젊은 남자들이었다. 반면 해안 마을로 소개되었던 선흘리 주민들에게 1949년 봄부터 지금의 낙선동에 전략촌을 구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낙선동은 마을이 없었던 ‘병두왓’이란 곳에 설촌되었다.

일절 집이 없었던 데라. 병두왓은 집이 원 없고, 사람은 ‘봉내’이 동산하고 뚝바령 이란 곳에 살았지. 여기는 사람 원 안 살아난디주. 순전히 여기(낙선동)는 밭이고, 여기(웃선흘)사람 밭이라. 그러니까 이게 네 개 방정한 곳이라. 그때는 밭이고 뚝이고 (정부)피움양 할 때난, 무신 우리밭 끊었다고 말을 못 험 때주게. 어디 명령이라.³⁰⁾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미가 보리쌀 물어가는 식으로 돌을 날랐어. 남자, 여자, 노인할 것 없이. 걸어져 있는 사람은 다 동원 해가지고서. 등짐(등 굽으면서)으로 이렇게. 남의 밭담도 가져오고 산담도 가져오고 일주일 정도 걸렸어. 그때는 계엄령 시절니까, 누게 아무말도 못 해여. 저것들 가져다가 돌들 해라 하면 남녀 막론하고 등짐으로 다 업어 왔지. 업어 와서 다 싸놓고, 주변에 먼 외각으로는 경찰들, 군인들, 특공대들 보초를 사고.³¹⁾

27) 김양언, 제주도 월평동, 2004년 9월 3일 증언자가 운영하고 있는 건영상사에서 필자가 채록했다.

28) 이 시기 산간 마을에 재건 허가가 내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입주를 위해 쌓은 성이 남아 있다. 어음2리성, 선흘리 웃선흘성, 제주도 월평동성, 노형 광평마을성 등이 있고, 그 외로 이 시기 재건된 마을은 대흘리, 와흘리, 와산리, 금악리, 상대리, 상명리, 청수리, 무릉2리 인향동 등이다.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 4·3유적』(2003,2004).

29) 10호 이상인 마을 중에서 재건 안 된 마을(잃어버린 마을)은 108개소로 나타났다. 앞의 책.

30) 김형조, 남, 04년 83세, 조천읍 선흘리, 2004년 10월 25일 1차 채록함.

31) 고희봉, 남, 04년 73세, 조천읍 선흘리, 2004년 11월 채록함.

<그림 1>은 선흘리 ‘낙선동 전략촌’의 구조도이다.

① 성벽은 사각형 모양으로 총 길이는 대략 500m로, 동벽 110m, 서벽 110m, 남벽 130m, 북벽 140m이며, 성안 면적은 15000㎡(4,500여 평)이다. 폭 1.5~1m, 높이 3~3.5m의 규모로 쌓았다. 네 각 모서리에는 높이 5m, 지름 3~4m 원형 모양의 이층구조식 망루를 세웠다. 남벽은 순찰과 방어를 위하여 회곽도 구조로 폭 2.5~1.5m로 다른 구역보다 더 튼튼하게 쌓았다. 중간 중간에 간이 2층 구조의 초소막을 세워 경비를 세웠다. 성담 위에는 사람 모양의 돌을 군데군데 얹어 놓았다.



② 주민들의 주택용으로 지었던 함바는 길게 1.2m 높이로 돌담을 쌓고, 군데군데 나무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나뭇가지를 걸쳐 놓아 새(주: 띠)로 덮으면 되었다. 칸막이는 억새를 세끼줄로 엮어 돛자리처럼 만든 다음 세우면 되었다. 함바가 높지 않아 몸을 굽혀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함바는 한 동마다 다섯 칸씩 갈라서 다섯 세대가 들어가 살게 하였다. 방, 마루, 부엌 구분이 없었고, 바닥도 억새를 깔라 놓은 것이 전부였다. 이곳 ‘함바’에는 당시 조천면 중산간 마을인 와산리, 웃선흘, 알선흘, 선인동 주민들이 들어왔다.

처음에 50세대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250세대까지 붙어났다. <그림 1>에는 200세대가 표시되어 있다.

③ 함덕지서 파견출장소가 정문 동쪽 30m 지점에 설치되어 성안에 주민들을 통제하고 경비 순찰을 담당하였다. 출장소 정문은 용성 모양으로 쌓고, 성담 폭 1m, 높이 2m로 튼튼히 쌓아 만일에 있을 습격에 대비했다.

④ 함덕국민학교 선흘리분교는 정문에서 남쪽으로 30m 거리에 학교와 운동장이 설립되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도 주민들은 아이들 교육부터 생각했다. 학교는 정식 교육

32) ‘낙선동 전략촌’ 구조도는 2004년 10월, 필자가 낙선동 주민들로 부터 구술채록 하여 구조도를 그려냈음 밝혀둔다. 이를 위해 고훈봉, 김내수, 부양하, 장두일, 김형조, 고성준 등을 채록하였다.

청의 인가를 받았으며 학생 15명과 교사 2인으로 운영되었다.

⑤ 성호(城壕)는 성담 밖을 돌아가며, 깊이 2m, 폭 2m로 깊게 팠으며, 땅을 파는 것이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축성 작업 보다 더한 노동이었다. 성호를 위장하기 위해 가시덤불을 잘라다가 호 속에 담아놓았고, 성담에도 가시나무를 덮어놓아 무장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동쪽에 암반 때문에 성호를 파지 못한 곳으로 1951년 5월 무장대의 습격도 있었다.

⑥ 망루는 내부가 이층 구조로 사각형 모양인 성의 귀퉁이 마다 세워져 있었다. 망루 보 초경비로 하룻밤에 5명씩 배정되었고, 1명이 이층으로 올라가 밖을 감시하면 4명은 대기하다가 교대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네 개의 망루 외에도 성담 중간 네 군데에도 간이 초소막이 있었고, 정문 쪽까지 초소막은 아홉 군데가 되었다.

⑦ 성안의 길은 동서로 3개의 길을 만들어 4구역으로 나뉘었다. 구역 안에는 함바집이 10동씩 들어서 있었다. 1동의 함바집에 5세대가 칸칸이 칸을 갈라 들어갔다. 대중에 1세대나, 2세대만 살았던 개인 함바집도 있었다.

⑧ 함바에서의 화장실은 각 성벽 마다 3~4개로 총 15개 정도가 성담에 붙어있었다. 성담에 반원 모양으로 돌을 쌓아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게 디딤돌을 두개 놓으면 되었고, 여유 있는 집은 화장실에서 돼지를 키우기도 했다. 거주민 수보다 화장실이 모자라 비가 올 때면 넘치기 일쑤였고, 냄새는 항상 지독했다고 한다.

⑨ 성안 북벽 끝 지경에 하르방당이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당목과 당집도 1948년 11월 초토화 작전에 불 타버렸고, 낙선동에 전략촌이 구축되면서 당은 마을 북쪽으로 옮겨졌다.

낙선동 전략촌 사람들은 1949년부터 1954년까지 6년 동안 이곳을 ‘알선홀 함바’라 부르는 함바공동체를 이루며 고난의 시절을 보냈다. 선홀리 웃선홀 사람들은 1954년 봄경에 ‘낙선동 전략촌’에서 해방되어 웃선홀에 성담 쌓고 재건하하였다. ‘독바령’이나 ‘봉냉이 동산’ 마을사람들은 낙선동 성안에 남았다. 그때 남은 가호 수가 23호였고, 현재는 15호가 낙선동에 살고 있다.

원래 선홀리 웃선홀 출신이었으나 낙선동에서 결혼하여 정착하게 된 고향 씨는 낙선동 분할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함바에, 성담 둘러네, 역새 해연 살때는 땅주인도 내땅이다 뭐이다 말을 못했다가, 한 5~6년 살아서. 어느 정도 다 뭐허니까 그때는 계엄령도 어서저 버리고. 자기 소유 찾을 것은 찾아야 된단 말이여. 원 땅임지한테 이거 다 돈주명 분할해가지고 (지적도를 보며) 전부 주인들한테 뭘 해가지고서 내가 측량기술자를 불러다가 다 측량해서 집터로 만들어놨지. 다 분할 시켜놨 다 팔안. 밭임지들 한티 돈을 줬지게 여기 최고 가진 사람이 150평 우리가 110평 영했는데, 그런 정도로 다 분배해네. 다 저래(성 밖으로) 나가부니까 그만큼씩 갈랐지³³⁾

지주에게 돈을 지불해 땅을 분할 받았으나, 다음은 돌 주인들이 성곽의 돌을 찾아가겠다고 오는 것이 문제였다. 돌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뿔뿔 뭉쳐야 했다고 고향 씨는 말했다.

33) 고향 씨 증언.

밭 입자들이 돌을 가전가젠 허니까, 요즘은 스키목들 심어서 방풍이 되니까 하는데, 그때는 여기 비행장 모양으로 민작헌데라노니까, 바람이 불면은 여기 사람이 살지 못하여 완전 공항 모양으로 번번헌 벌판에 성담 허물면은 살수가 없게 생겼어. 우리 밭담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막 싸움 바람질허명. 어뎡어뎡 우로 조금씩 파손된 것도 있기는 있지만, 원인은 경헨 있는 거지. 남아 있겠다든 사람들이(성곽을 지킨 거지 주변에 밭 입자들이 와그네 그 사람들은 1대 개인이고, 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단체로 그냥 허고 개인하고 허니까 싸우다가 맥살을 잡다시피 허명 성담을 지금까지.³⁴⁾

2) 전략촌 주민의 경비 활동

낙선동 전략촌 안에서의 생활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고향으로 간다는 들뜬 마음도 잠시, 경비 활동에 전 주민이 투입되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성안에서 지내게 된 선흘리 주민들은 이를 악물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4.3을 거치며 큰 희생을 치른 선흘리 주민들은 청장년층 남자들이 부족으로 여성들의 생활은 더 고단했다.

낙선동 전략촌에서의 경비 업무는³⁵⁾ 야간에 아홉 개 초소마다 5교대로 이루어졌다. 근무조는 각 초소마다 5명씩, 매일 밤 40명이 동원되었고, 외곽 경비 각조 3명씩, 2개조가 동원되었다. 초소 배치는 정문보초는 특공대, 1초소 의용경찰, 2초소 의용경찰, 3초소 남자노인, 5초소 여성, 6초소는 노인과 의용경찰 1명, 7초소 여성, 8초소 남자 노인과 의용경찰 1명, 9초소 여성 등으로 배치되었다. 정문은 서(西)벽에 있었고,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았으며 24시간 보초를 섰다. 정문에서는 출입하는 사람마다 양민증이나 통행증을 확인했다. 보초업무 담당자에게는 대창, 특공대에게는 수류탄 1개와 철창이 지급되었다. 수시로 암호가 전달되었고, 여성이라고 보초업무에 예외일 수 없었다. 여성 보초막은 세군데(5, 7, 9초소)나 되었고, 여성대한청년단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함덕리나 조천리에 가서 정식 훈련도 받았다. 여성에게는 대창만 지급되었다. 비상훈련에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곤욕을 치렀다. 날마다 다른 암호가 하달되었고, 암호는 바로 생명선이었다. 민보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역주민들이 담당했고, 부녀자들은 토벌대나 경비조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로 시달렸다. 여성한청으로 훈련에 참가했다는 김내수 씨는 여자도 용감해야만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뎨 용감안해영은 살수가 없어. 우리가 여기 올라와서 이 성을 지키면서도 남자와 같이 훈련해영, 북촌 학교 마당, 함덕 학교 마당, 조천학교 마당에서 그 훈련을 하민, 딱 36명 세워낭. 석줄로 세워낭. “또라이(돌라이 가) 갓, 또라이 갓”허민 지레 지만씩. 다 동서레로 흠어졌다가 다 돌아왕 탁탁. 이녜 설 자리에 들어서고. 그때가 살때라. 그런때가. 그 훈련 못견디게 받으명도 기분이 있어. 경허명 해영. 여기 걸어오질 못할 정도로 한 사람 잘못허민 그 36명이 다 기합이라. 함덕에서 걸어오지 못허명 훈련을 받았어.³⁶⁾

더구나 1950년에 6.25가 발발하면서 그나마 있던 남자들은 예비검속 되거나, 군입대 등으로 성안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초소마다 남자 1명에 여성, 노인 가릴 것 없이

34) 고헌봉 증언.

35) 필자가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 주민인 고헌봉, 김내수, 부양하 등으로 부터 구술 채록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36) 김내수, 조천읍 선흘리, 2004.11.18 채록함.

누구나 동원되었다. 먹고 살기 위해 농사지를 겨를 없이 보초에만 전념해야 했다. 1951년 6월 9일(음 1951년 5월 5일) 새벽 4시 30분 경, 무장대는 식량탈취를 위해 함바를 습격했다. 여성초소인 5보초막 근처로 들어왔다. 이곳 땅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성호를 파지 못한 곳이라는 것을 무장대들은 알고 들어온 것이다. 이때 5초소막에 있던 김내수 씨는 폭도 왔다는 소리에 무조건 도망갔다고 증언했다.

폭도 들어온지도 꼭 우리 보초막으로 들어왔어. 우리가 보초선다. 나광 동갑 아인데, 나가 먼저 서고, 가이는 문밖을 때 쏘주게. 우리영 보초막에 담요돌린, 가운데 돌 다완 불 살라네. 소랑소랑 누운거 아니? 누니까, 그 아이가 여깃 말이 서틀렸어. 일본에서 살다가 오난 “아고 아고, 성 바깥에 거명 아고 성 바깥에 거명”영헐 그땐 확 담요 건된 영 보난, 벌써 성담에 올라완. 벌써 외랑와랑 내려와서. 경 내려와노난 급해노난 돌지도 못하고 어디 돌아갈 곱을디 찾안 ... 어떤 할으방네, 고 판 똑 늙는다. 요런 음팡헌디, 할으방네 집 어욱 밑에 음장허게 업더져불더라고 (숨어 기어들어가는 모양새로). 가이 먼저 들어가고, 나도 가이를 폭 안양 업더졌어. 총알은 대맹이 위로 썩썩 날라 가고.³⁷⁾

습격 당시 무장대들은 성담 위에 올라서서 “어머니, 아버지들 빨리 옵서, 곧 해방되옵수다. 잘 살게 해주쿠다.”하며 연설하다가 총에 맞아 떨어져 죽기도 했다. 무장대들은 성담을 넘자마자 파출소를 공격했다. 지서 정문 옹성 때문에 입구를 찾지 못해 총만 쏘다가 퇴각했다고 한다. 이날 습격으로 무장대 측은 남자 4명 희생되고, 성안에서는 다음날 결혼할 신부였던 정덕순 씨가 납치되어 행방불명되었고, 부승옥 씨는 총상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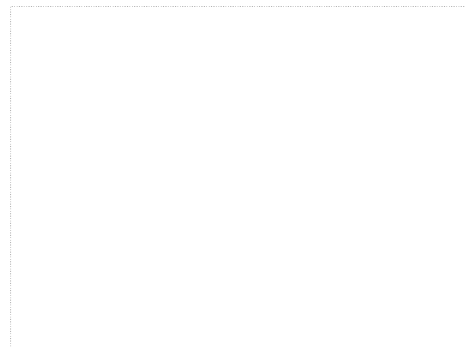
여기서 그때 공비해가지고 습격 받은 때가 성과를 올렸기에 다행이랴주. 경안해서민 큰일 날 뻔 했주. 그때 경찰관이나 죽어와시면, 폭살시켜불겨주게.³⁸⁾

이날 전과로 성안 파출소에 근무하던 우시근은 경사로 승진되었고, 특공대에도 이때부터 구구식과 M1 10정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3) 전략촌 주민의 생계

제주도는 무장대의 4·3봉기 이후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여야 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었다. 하물며 바다 조업도 금지되었다. 먹을거리, 입을 거리, 잘 거리가 마땅치 않은 이들에게 죽는 것 보다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었다.

함바집은 안에 냄비나 솥을 들맹이 세 개에 얹어 놓으면 부엌이고, 누워 자면 방이었다. 비가 오



낙선동성 총구 흔적

37) 김내수 증언.

38) 김형조 증언.

면 비 맞고, 밤이 되면 별 보면서 잠들었다. 함바 가운데에는 화로 구실을 하는 봉덕³⁹⁾을 만들어 들레에 모여 추운 겨울을 이겨내었다. 그러나 바닥이 역새로 덮여 있어 자칫 하면 불나기 일쑤였다. 화장실은 성담 옆에 반원 모양으로 돌담을 쌓고, 그 안에 디딜팡 두개를 놓으면 되었다. 성벽 마다 칸칸이 4개 정도 있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돼지도 길렀다. 사람 수는 많은데 화장실은 적어, 화장실이 금방금방 넘쳐 났고, 냄새가 지독했으며, 비가 오는 날이면 돌담구멍으로 구정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이런 화장실 문제로 전도에 이질이 돌았던 적도 있다. 낙선동에도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이가 있었다. 이런 비위생적인 문제는 물이 없었기 때문도 한몫했다. 함바에는 물이 없고, 성 밖에 봉천수인 ‘마태이물’이나, ‘구릉밭’, ‘병작이물’ 등에서 길러다 먹었다. 물은 공동으로 길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길러왔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집은 더욱 곤란했다. 먹을 물이 모자란데 빨래나, 세수, 목욕 같은 위생적인 생활은 바랄수가 없었다. 옷을 제때 갈아입지 못한 이들의 몸에는 이가 바글거렸고, 냄새도 지독했다.

옷이 어디 서야지. 옷이 없고. 하이고 이가 ... 형편어서 바글바글해그네, 별난때는 잡고 잡고 해도 ... 우리 주위에 그 사람도 군인간 죽어붙었주마는 고순백이는 하도 바글바글한 옷을 벗겼는데, 원 다시 입질 나위가 없어. 우리 집 쇠막에 간 걸어놔두난, 그냥 이가 옷에 해영게 ... 영허멍 해연. 오죽해사 살아샤 ... 무슨 약이 셔. 뭐가 이셔. 그거 해그네 보초막에 강 누웠도 자고 그디 있다가 집에 가도 보초막이나 다름 없는다. 그자 입은 체로 무슨 이불이 시냐? 뭐가 시냐? 그거 입은 체로 그자 그냥 봉덕 영해그네. (땅)파그네 불 살리듬서 다리 영한 누워 경헨 살았주.⁴⁰⁾

먹는 것은 밀주시(밀채), 툇(툇), 패, 물웃(말리지 않은 우뭇가사리), 썩, 모시잎 등을 가루 조금 넣고 버무려서 범벅을 만들어 먹었다. 그나마 조금씩 배급 주는 알량미는 제사 때나 명절 때 쓰려고 고히 간직해 두어야 했다. 토벌 갔을 때 비장해두었던 식량들을 꺼내오기도 하고, 들판에 돌아다니는 말이나 소를 잡아다가 경찰들과 구워먹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축성 작업 이후 가을 농사부터 할 수 있었다. 소개령으로 내려간 뒤 만 1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성 밖에 있는 밭에 가기 위해서는 경찰에 일일이 신고를 해야 했다.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신고하고 도장을 받고 보초막을 통과하여 성문을 나서면 특공대 청년들이 죽창을 들고 따라나서 경비를 서주었다. 해가 지기 전에 성안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밭까지는 갈수 없었다. 그러나 주인을 잃은 밭들이 성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 살았다.⁴¹⁾

11월 말경이 되면 함바는 명절이나 다름없다. 1948년 11월부터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날에 집단적으로 희생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동안 배급받아 고히 간직했던 알량미를 꺼내 제사상에 올린다. 고성준 씨는 제사나 명절이 돌아오면 그릇도 없고, 제물도 없어서 곤란했다고 말했다.

39) 봉덕: 마루바닥에 설치된 돌화로. 사각형으로 땅을 조금 판 다음 주위에 돌맹이를 놓고 장작에 불을 지피는 것.

40) 김형조 증언.

41) 이정주,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43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9, 84쪽.

그렇게 굶으명도 제사한다고, (음력) 10월 나민 명절이주. 정부에서 준 것이 알랑미라고. 쌀 배급을 주면 그걸 마음대로 많이 먹어져? 그걸 해그네 집에 곱져들서 제사때나 명절때나. 그릇도 어서노난, 밥 양푼이 큰거 하나해서, 메(멧밥)해서 밥해놓고, 열이면 열. 두개면 두 개씩 꽃아난. 무슨 그릇이 이시냐? 뿤가 이시냐? 밥도고리 모양으로 헨. 옛날에 낭으로 밥 도고리를 헨 ⁴²⁾

곡식을 찢는 방아 또한 성 밖에 있었다. ‘봉냉이 동산’과 ‘독바령’에 있었던 방아는 불타 없어져버렸다. ‘봉냉이 동산’쪽으로 가는 길에 지붕을 거뒀 두었던 방아가 남아 있어 꺾 질만 깨는 정도해서 먹을 수 있었다. 삶이 척박하니 사람들의 마음도 피폐해갔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눈도 별경고 코도 별경다고 한다. 남을 의심하는 것도 많고,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도 종종 있었다. 성안에서 돈을 만져볼 수 있는 일은 선흘곳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장작이나 숯을 파는 것이다. 김내수는 여자 몸으로 남편을 군에 보내 놓고, 혼자 가정을 꾸려나가려니 기가 막혔다고 했다. 여성들이 삶은 더 고단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새 간 보초서고 어느새 간 훈련받고. 벌언 입구입도 못헨 살았지. 보초 서단 낮에는 무신거 허고. 밤에 보초서고 일도 못헨지.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일당 벌어 먹을 수가 있나 뿤허나 산에 강 낭해연 그걸로 헨 여기서 시에까지. 새벽 3시 되민 걸어야전 시에까지 가. 짐 져야전 간 6~7시되민 시에 들어가지게 팔앙 돌아오고 돈이 없으니까. 주로 먹은 것이 밀주시. 밀가루 빼난 주시 채. 그런 거 해그네. 옛날 사카린이엔 헨거 떡 만들영 달게 만들영 허민 애기들도 주민 내려가지 안해영. 꿀꺽꿀꺽. 막 소뿤 울명 안 내려강 허곡. 그것도 줌 헨 사람은 못 먹고 그것도 돈을 벌영 강 사와야. 채도. ⁴³⁾

낙선동에서 출장소 경찰이면 왕과 다름없었다. 물도 길러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심부름은 물론 부식도 만들어 받쳤다. 경찰의 제사나 명절도 성안 주민들이 준비해 주었다. 그러다가 경찰의 마음에 안 들었다하면 단체기합을 받아야 했다. ⁴⁴⁾ 경찰의 허락 하에 숯을 구워서 제주시에 가져다가 팔면 우선 경찰들이 먹을 부식거리를 사야 했다. 하루 한 끼 먹고 살기 힘든데도 경찰들 식사는 반별로 돌아가며 푸짐하게 마련했다. 경찰은 출장소에 5~6명이 근무를 하는데, 대부분 성안에 사는 홀어멍을 데리고 살았다. 여성들도 혼자 살기 힘든 때 경찰의 각시가 된다는 것은 살기 위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 각시는 술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고 한다. 해안마을에 내려가서 허벅에 술을 사다가 성안에서 팔기도 했다고 한다.

4. 멧음말

본 연구는 제주 4·3 진압작전에 나타난 4·3전략촌의 성격 변화과정과 그에 따른 제주도 민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사례로 선흘리 낙선동 전략촌을 선정하여 그 안에서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았다.

선흘리 낙선동 전략촌은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곳으로 4·3유적지 정비계획에 따라 복원할

42) 고성준, 조친읍 선흘리, 2004년 11월 11일 채록함.

43) 김내수 증언.

44) 김형조 증언.

예정이다. 성곽뿐만 아니라 성안에 거주했던 선흘리 주민들의 생생한 구술은 전략촌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착하여 살아 온 주민들의 정착사도 조사 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4·3 진압과정에 나타난 ‘전략촌’은 중산간 마을에서 강제 이주된 주민들을 집단 수용하고, 산쪽과의 차단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전략촌에서의 생활은 형무소 생활 이상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졌다. 고향땅을 잃은 주민들은 식량난으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소 돼지의 옴막보다 못한 함바집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

성담을 쌓아라, 마을을 재건하라, 성담을 지켜라, 경찰파견소나 인근 경찰 주둔소에 식사를 담당하라, 열심히 토벌에 협조하라는 등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은 강제노역과 보초노역은 ‘죽지 못해 살아남아 있는 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전략촌에서 감시와 불신의 경험, 토벌대와 경찰의 강압에 대한 복종의 경험은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제주의 혈연, 지연 공동체를 붕괴시켰고, 불신·이간하는 풍조 낳았으며, 개발과정에서도 한마디 항변하지 못하고 거세당한 사람들로 남아야 했다. “절대 앞서지 말고, 중간에만 서라”는 말은 4·3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는 절대적 진리처럼 여겨졌다. 4·3전략촌은 누천년 동안 이어왔던 제주의 자연마을의 구조도 변모시켰다. 일부의 마을은 잃어버린 마을로, 일부의 마을은 정부 진압부대가 구획한 획일적 형태의 전략촌 모습으로 남아 버렸다. 4·3의 생활사를 들여다보는 일은 어찌면 고통스러운 4·3의 아픔을 재현하는 일인 동시에 4·3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의 공동체의식 복원과 제주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양가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4·3전략촌과 도민의 생활상을 조명하고자 했으나 조사의 부족으로 심도 있게 생활상을 다루질 못하고, 단편적 현상만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쳐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속적으로 생활사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① 당시를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각 부분별 생활사 연구, ② 마을 복구 및 정착상황 연구, ③ 4·3전략촌성, 지서성, 토벌대 주둔소성에 관한 연구, ④ 재산권 복원 문제 연구, ⑤ 4·3 피해 실태 연구, ⑥ 제주 공동체의 복원 및 변화과정 연구 등 4·3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래본다.

[주제어] 4·3전략촌, 초토화 작전, 마을 재건, 4·3석성, 낙선동, 생활사, 알선흘 함바, 축성

■ 참고문헌

1. 학위논문

- 강성현, 「제주 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 박명립,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8.
- 양봉철, 「제주경찰의 성격과 활동연구—제주 4·3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2002.
- 고성만, 「제주 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은희, 「제주 4·3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5.
- 양정심, 「제주 4·3항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05.

윤석찬, 「4·3이 제주 교육에 미친 영향-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윤희탁, 「일제하 만주국의 치안숙정공작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1995.
 장윤식, 「제주 4·3초기 '무장대'의 조직활동」,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5.
 함옥금, 「제주 4·3의 초토화 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허호준,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2.

2. 논문·단행본

강준만, 『현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004.
 김동만, 「4·3박물관-양민증」, 『제주 4·3연구소 소식』 제14호, 1995.
 _____, 「시오름주둔소」, 『4·3장정』 5, 제주 4·3연구소 1992.
 김동훈, 「한국전쟁의 리면-집단학살로서 한국전쟁」 조선사 연구회, 2002.
 _____,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1.
 김종민, 「4·3이후 50년」,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_____, 「제주4·3항쟁-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통권 42호, 역사비평사 1998.
 김창후, 「넬슨 특별감찰보고서-제주도의 정치상황에 나타난 제주도지사 유해진」, 『제주도연구』 제17집, 제주학회, 2000.
 노민영 엮음, 『잠들지 않는 남도』, 은누리, 1988.
 서중석, 「제주4·3의 역사적 의미」,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양조훈, 「제주4·3의 역사적 조명」, 『제주도 연구』 15, 제주학회, 1988.
 _____, 「제주도 메이데이를 통해 본 미군정의 4·3 토벌정책」, 『제주4·3 제 51주기 기념 세미나자료집』 제주4·3연구소, 1999.
 양정심,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 4·3항쟁의 배경」,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이 윤, 『진중일기』, 여문각 2001.
 이도영 편역,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장세윤, 「조선혁명군 연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 4집, 1990.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1』, 전예원, 1994.
 _____,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_____, 『4·3은 말한다 3』, 전예원, 1995.
 _____, 『4·3은 말한다 4』, 전예원, 1997.
 _____, 『4·3은 말한다 5』, 전예원, 1998.
 제주도, 『제주도지』, 1993.
 제주 4·3연구소, 『제주항쟁』, 실천문화사, 1991.
 _____, 『이제사 말해준다』 I·II, 도서출판 한울, 1989.
 _____, 『4·3장정』 I~VI (1990~1993)
 _____, 『4·3과 역사』 I~IV, (2001~2004)
 _____,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역사비평사 2002.
 제주4·3제50주년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탐라문화』 제11호, 1991.
 현용준, 『한라산을 오르듯이』, 각, 2003.

3. 간행물·자료집

- 권귀숙, 「제주 4·3의 기억들과 변화」, 『제주 4·3 5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3.
- 김동만, 「제주 4·3항쟁 진압작전과 주민학살」, 『제주 4·3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 공동 4·3학술기행 자료집』 1994.
- 대검찰청, 『좌익사건실록 1권』, 1965.
- 대한민국국방부전훈국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권-해방과 건군』 1967.
- 제주도, 제주 4·3당시 「잃어버린 마을 실태조사서」, 2000.
- 제주도 경찰국, 『제주 경찰사』, 1990.
-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 4·3유적Ⅰ』, 각, 2003.
- _____, 『제주 4·3유적Ⅱ』, 각, 2004.
- 제주4·3연구소, 『제주4·3 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도의회, 2000.
- _____, 『제주4·3 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각, 2001.
- 제주도, 『제주도의 방어유적』, 1996.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자료집』(1-6) 2002.
- _____, 『제주4·3사건 자료집』(7-11), 2003.
- _____,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제주도, 『제주실록』, 1997.
- _____,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2003.

4. 구술자 명단

- 김형조(남, 1922년생,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 고성준(여, 1925년생,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 고학봉(남, 1932년생,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
- 김내수(여, 1930년생,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
- 장두일(남, 1932년생,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선인동).
- 부양해(남, 1934년생,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
- 강위옥(작고, 제주시 월평동).
- 강재운(남, 1922년생,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 강갑능(남, 1913년생,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
- 송주형(남, 1921년생, 제주시 오라동).
- 김자봉(남, 1930,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 강문팔(남, 1923년생,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 양중윤(여, 1927년생, 제주시 화북동).
- 현용준(남, 1931년생, 제주시 용담동).
- 강좌겸(남, 1927년생, 제주시 이도동).
- 허태현(남, 1935년생, 제주시 도남동).
- 이기선(남, 1927년생,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 이순정(여, 1932년생,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신순영(남, 1934년생, 제주도 구좌읍 동북리).

이윤(남, 1924년생, 제주도 연동).

문명옥(남, 1932년생,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양태보(여, 1918년생, 제주도 봉개동).

양중화(남, 1932년생, 제주도 노형동).

김양언(남, 1940년생, 제주도 월평동).

5. 신문·잡지

『경향신문』, 『독립신보』, 『동광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연합신문』, 『제주신보』, 『조선일보』, 『한성일보』, 『해방일보』, 『현대일보』, 『자유신문』, 『노력인민』, 『월간제주』, 『조선중앙일보』, 『국도신문』, 『대동신문』, 『국제신문』

K C I

The formation of the strategic village during Jeju 4·3 and the life of the villagers

—focusing on the case of *Nak Seon Dong*, *Seon Heul Ri* village—

Kim, Eun-Hee(Jeju 4·3Research Institute)

On 30th Oct, 2003, President *Roh Moo-Hyon* formally apologized to the islanders for the faults of the past state power, acknowledging many innocent islanders were killed by the suppression of the security forces. This is the first formal apologization by the government for the unliquidated histo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ior to this event, on 15th Oct, that year, the report of the truth-finding of Jeju 4·3 were adopted by the government. By the formal announcement of the government, the truth of 4·3 which were identified with '4·3 riot' are somewhat corrected. It resulted from the truth-finding movement of 4·3 since 1987. In the process of the truth-finding movement, the studies of Jeju 4·3 have been concentrated to the violence by the state power and mass killings.

But, before and after the issue of the report of the truth-finding, the subjects of the study of Jeju 4·3 became more various and more broadened. Along with them, the life history of Jeju 4·3 has appeared as the new field of the study. In this connection, I try to review the change process of the character of 4·3 strategic villages which were set up during the suppression operations of Jeju 4·3. And I also try to find the life of the villagers. As this case, I try to study the *Nak Seon Dong* strategic village of *Seon Heul Ri* and review the life of the villagers.

The strategic village was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impounding the villagers who were forced to relocate from the mountainous villages and isolating from the guerrillars and refugees.

The villagers of *Nak Seon Dong* strategic village endured their troubled times in this for 6 years from 1949 to 1954, and they called this '*Al Seon Heul Hamba*'.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including defense the stone walls, provide the foodstuffs to police detachments or posts, and force to collaborate with security forces led to the suffering of the survivors.

Most of the villagers who had lived in *Nak Seon Dong* returned to their home villages in 1954. The remainders of about 20 households bought the lands and they still live in this village.

Reviewing the life history of Jeju 4·3 means reviving the agony of Jeju 4·3 and

restoring the common consciousness before Jeju 4.3. It is also the process of recovering the identities of Jeju islanders.

[Key words] 4·3strategic village, scorched earth operation, reestablishment of the village, 4·3stone walls, *Nak Seon Dong*, life history, *Hamba* which was located *Al Seon Heul*, constructing walls

K C I

к с і